

쇠고기 이력제



이력정보 조회 안내전단지 배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쇠고기이력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소비자의 휴대전화(6626) 이력조회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이력정보 조회 안내전단지'를 3만5천부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금번 홍보전단지는 소비자가 쇠고기 구입 시 이력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휴대전화 이력조회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강원지역

강원축산한마당잔치 열린다

강원도는 지난 1968년도부터 개최되어 전국에서 가장 전통 있는 축산행사인 '제37회 강원축산한마당잔치'를 오는 10.1(금)~10.2(토) 까지 2일 동안 시와 별이 흐르는 박물관의 고장 영월군 '동강 둔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금년 축산한마당잔치의 개최목적이 크게 세 가지로서 첫째, 강원축산물 시식회 등을 통한 강원축산물 홍보 둘째, 축산인과 관람객에 축산분야 체험 및 참여기회 부여 셋째, 도 내외 축산업 종사자간에 정보 교환과 연대감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아울러 FTA 타결 등 축산물시장 개방과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차단, 경영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사기진작과 축산업의 하나 됨을 이끌어 전후방 연관산업 일체감 조성으로 축산업 발전계기의 장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라 밝혔다.

전북지역

익산 왕궁축산단지에 생태숲

60여년 동안 축산폐수로 익산천은 물론 만경강 수질 오염과 악취 등 환경문제를 유발해온 전북 익산시 왕궁

축산단지(170만㎡)가 친환경 마을로 탈바꿈한다. 이로써 새만금 일대 수질개선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와 국무총리실, 국가권익위원회, 전북도 등 7개 기관은 지난 7월 30일 익산시청에서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왕궁 환경개선 종합대책 설명회'를 가졌다.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하천오염원이 되고 있는 왕궁 축산단지의 축사를 배입·철거하겠다고 밝혔다. 하천과 저수지는 모두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새만금 유입 오염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축사 200여개 가운데 160개를 사들여 생태숲을 조성하고 환경개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축산·생활폐수 처리장을 보장한다.

한센인을 위한 양로시설 신·개축과 소공원도 조성한다. 사업비 1천159억원 가운데 706억원은 정부가, 나머지 453억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전남지역

친환경축산물 항생물질 검사 강화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가 도내 젖소 사육농가에 대한 브루셀라병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8월 2일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에 젖소 브루셀라병 검사는 낙농가에서 생산하는 원유를 이용한 밀크링반응법을 적용해 종전에는 50마리두군(群)을 기준으로

검사했으나 희석비율에 따른 오차를 줄이고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검사기준을 강화해 20마리군을 기준으로 검사하고 있다. 농가를 방문하지 않고 집유장에서 수거한 원유를 이용해 검사함으로써 인력과 비용을 절약하고 브루셀라병을 조기에 색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원유를 이용한 밀크링검사법(MRT)으로 올해 2개소의 양성농장을 색출했다.

밀크링검사법은 원유를 이용해 브루셀라병을 진단하는 검사방법으로 양성 반응이 되면 시험관 속에서 푸른색의 링 모양을 나타내기에 밀크링 반응법이라고 한다.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내 400개소의 사육농장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해 젖소 사육농장 보호와 청정우유 생산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해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녹색축산 인증 확대 총력

전라남도가 동물복지 실현하는 친환경축산 실천을 적극 유도한 결과 인증농가가 전국 대비 36%를 차지하는 등 친환경축산물 생산 메카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인증농가 5천호 달성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7월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녹색축산 3차년도인 올해 동물복지, 축사시설개선, 축산환경개선 등 13개 사업에 534억원을 투입해 녹색축산 기반 구축을 적극 추진한 결과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가 6월말 현재 유기축산 2호, 무항생제 1천748호 등 1천750호에 이른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안전성 요구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친환경축산을 실천하기 위해 축종별 현장중심의 농가교육을 강화해 친환경축산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친환경축산물 생산자를 조직화·브랜드화해 유통시스템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지역

울산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일제 점검

울산시는 자유무역협정체결(FTA)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에 의거 지원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 8월 4일부터 6일까지 지원농가 5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별 각종 인·허가 이행여부와 완료농가의 경우 축산업등록에 의한 적정사육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한 농가는 보완지시와 함께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 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올해 5개소에 4억6천500만원(국가보조 1억3천900만원, 용자 2억3천200만원, 자부담 9천400만원)을 투입했다.

제주지역

지중열 이용 축산 현대화사업 마무리

제주시는 올해 지중열 이용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지난 8월 3일 밝혔다.

지중열 이용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전국 최초로 제주 지역의 천연자원인 지하공기를 축사 냉난방에 활용, 축사 내 환기시스템 개선을 통한 소모성 질병예방은 물론 에너지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기술적으로는 지중열 이용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제주지역의 지하 50m 내외의 화산암반층에 형성된 일정한 온도(18~20℃)의 지하공기를 송풍시스템을 이용해 축사내부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올해 17곳에 국비 2억3천200만원, 지방비 9300만원, 자기부담 1억3천900만원 등 모두 4억6천400만원을 투자했다.

시는 앞으로 무창돈사 및 계사 등에 지중열 이용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속 추진, 양돈·양계 농가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FTA 및 외국인산 축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양축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